

## 청소년 성발달과 잠재비행간 경로에 대한 구조모형분석

SEM Analysis of Sexual Development and Potential Delinquency in Youth

신미(Mi Sihn)<sup>1)</sup>

유미숙(Mee Sook Yoo)<sup>2)</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development, sensation seeking traits, exposure to pornographic media, peer conformity, and potential delinquency on the part of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In order to verify the model, we used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analysis. 603 adolescents were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both male and female models goodness of fit and significant paths was proven. Second, it was also found that gender difference existed in the model.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th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성발달(sexual development), 자극추구성향(sensation seeking traits), 음란매체 접촉경험(exposure to pornographic media), 또래동조(peer conformity), 잠재비행(potential delinquency), 청소년(adolescents).

### I. 서 론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각종 범죄를 전하는 소식을 듣는다. 이 가운데 청소년 범죄도 심상치 않게 접하는데 소년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대검찰청(2009)의 범죄분석을 보면 2005년에 3.6%, 2006년 3.9%, 2007년 4.6%, 2008년 4.9%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중요한 변화는 자연령화 현상이다. 2009년 아동청소년백서에서 지난 6년간 전체 청소년 범죄에서 19세 소년범죄 비

<sup>1)</sup>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아동심리치료전공 박사수료, 연세정신과 아동청소년상담사

<sup>2)</sup>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Mi Sihn, Major in Child Psychotherapy, Dept. of Child Welfare &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52 Hyochangwon-gil, Yongsan-gu, Seoul 140-742, Korea  
E-mail : sinnmi@sm.ac.kr

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16세 소년범죄율은 빠르게 급증하여 2008년에는 전체 청소년 범죄의 2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16세는 통상 중학교 3학년을 일컫는데, 이를 중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해보면 14세 7.1%와 15세 18.0%까지 합산하여 무려 47.3%의 수치가 중학교 청소년기에 일어나고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이 중 성범죄도 상당하여 2008년 2,112건의 청소년 성매매가 발생하였고 성폭력과 같은 강력범죄도 2008년에 2,126명으로 전년까지 1천 명대를 유지하던 수치를 넘어선 것이다. 신현기와 이상열(2006)에 따르면, 2005년 전체 성폭력 피해자 중 약 27%가 8세에서 19세 아동·청소년이며 동시에 전체 가해자의 10.6%가 마찬가지로 8세에서 19세 청소년이라고 한다. 또, 청소년의 5.8%가 강제적 애무나 강간 등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신혜섭·양혜원, 2005). 성경험에 있어서도 첫 성관계 경험시기가 15-16세로 47.5%를 차지하였고, 중학생들의 일상생활 속 고민을 알아본 조사에서 성문제가 전체 고민거리 중 66.2%로 절대적 관심사였다(김상원, 2005).

이는 우리가 중학교 청소년의 성범죄 및 비행이 증가하는 이유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음을 시사한다. 나이가 중학생이 발달 중이라는 청소년기 시점을 감안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성폭력에 대한 연구에서 이른 나이에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이 성인기가 되어 성폭력을 처음 저지른 사람들보다 만성적 성범죄 커리어로 빠질 확률이 높고(Moffitt, 1993), 다른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동반할 확률이 훨씬 높다(Loeber & LaBlanc, 1990; Nagin & Farrington, 1992)고 한다. 이렇게 청소년 성범죄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영역으로, 본 연구가 잠재비행에 초점을 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즉, 사회적인 윤

리규범에 벗어나나 미성년자에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고 해도 그 자체는 범죄로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학교에서 이탈되지 않고 재학 중이나 그대로 방치해두면 장래에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거나 부적응적인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한 행위를 포함하기 위해서 잠재비행에 주목하였다. 이로써 중학교 청소년의 성발달을 이해하고 문제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교육 및 상담에 조속히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기대하는 바이다.

여기서 청소년의 비행을 야기하는 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의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음란매체가 난무하는 유해환경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학교 청소년기의 성발달상에 관한 것일 것이다. 먼저 음란매체에 관한 청소년의 접촉실태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인근환경에는 유혹적인 성적 자극이 널려있다. 예컨대, 인터넷사용의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이 2004년에 이미 99%를 초과하였고 만 12-17세 청소년 대부분이 인터넷 이용자이나 12-19세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27.6%가 원치 않는 음란정보에 노출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또, 중·고등학생의 84.4%가 인터넷 사용과정에서 음란정보를 접촉한 적이 있었고(정보통신위원회, 2001), 인터넷 채팅 중 청소년이 성매매를 제안 받은 적이 있는 경험이 일반청소년 5.4%, 위기청소년 15.8%로 통틀어 21.2%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굳이 인터넷이 아니어도 청소년이 이용하는 41.8%의 가장 높은 접촉률을 보이는 매체가 19세 미만의 시청불가 방송 프로그램(방송통신위원회, 2009)이었으며, 성인 잡지나 비디오 등 모든 음란매체에 대해 이를 처음 접한 시기가 63% 이상이 중학교 때라고 응답하였다(강미라, 2002).

이처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서 상업적이고 저속적인 상품으로 전락한 성을 접하기란 쉬운 일이 되었다. 이런 음란매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주로 음란매체에서 등장하는 폭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 이런 매체의 공통점은 폭력이나 학대가 성적 만족의 수단이 되고 있으며 폭력이나 학대의 희생자는 거의 모두 여성(윤가현, 2006)이란 점을 들고 있다. 덧붙여 폭력이나 학대의 장면이 빈번히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한 연구에서는 포르노의 폭력성이 폭력적인 충동의 발산을 조장한다고 주장하였다(Russell, 1984). 이와 같은 맥락의 유사연구에서도 음란매체에 대한 노출이 여성에 대한 남성의 공격성을 당연시하는 경향을 증가시키고 강간에 대한 문제를 사소하게 여기게 한다(Anderson et al., 2003; Donnerstein, 1994; Malamuth & Donnerstein, 1984)고 주장하였고, 자주 노출된 남성들은 강간에 대한 지각에도 변화가 생겨 희생자들보다는 강간범들에게 더 많은 동정을 하게 되었다(Malamuth & Donnerstein, 1982)고 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성범죄자의 6세에서 10세 이르는 아동기경험을 보면 정상아가 2%인데 반해 강간범의 30%는 노골적인 음란물에 노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경희, 2000). 국내의 연구에서도 남자 중학생들 중 컴퓨터 음란물 접촉 경험자가 79.4%, 출간된 음란물 접촉경험자가 46.3%에 달하였고, 이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반응이 81.3%로 가장 높았으며(김영혜 · 이화자 · 정향미, 2000), 강간통념과 음란물 접촉의 상관관계에서 남자중학생의 집단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그들에 대한 성교육이 제기되었다(이건호 · 강혜자, 2005). 더군다나 음란매체 접촉과 잠재비행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서도 음란매체의 최초 접촉시기에 따라 조기에 접할수

록 잠재비행성이 높아졌음(강미라, 2002)을 보고하였고, 조사한 1,578명의 청소년 중 7.8%가 인터넷 음란물에 중독되었으며,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한 후 4.0%가 성추행을 시도하고 3.0%가 성폭행을 하였으며 2.2%는 청소년 성매매를 한 것(남영옥 · 이상준, 2005)으로 나타났다. 결국 음란매체 접촉이 청소년기에 치명적이고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절대적이라 하겠다.

더욱이 중학교 청소년에게 이러한 성적 자극을 피해 생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즉, 두 번째로 중학교 청소년의 성발달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중학교 청소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데에는 성장의 한복판에 서있기 때문으로 이해되며, 성적인 측면에서도 다를 바 없다. 이들은 성적 성숙이라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는 자연스레 성에 근접해가고자 하는 내적인 욕구를 접하게 됨을 의미한다. 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성적인 욕구가 강해지면서 이성과의 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시기(Havighurst, 1972)인 것이다. 게다가 우리사회는 내적으로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성 가치관을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외적으로 정보통신 및 미디어 발전으로 선정적이고 향락적인 성적 표출이 난무한다(신미 · 유미숙, 2010). 이로 인해 중학교 청소년은 더욱 혼란스럽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9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에서도 유해매체를 처음으로 접촉한 시기는 중학교 1학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첫 성관계 연령도 성관계를 경험한 3.9% 중 일 반청소년이 15.6세, 위기청소년이 그보다 어린 14.9세로 조사되었다(여성가족부, 2010). 다른 연구에서는 이보다 어린 14.2세(이임순 · 최규연 · 차성현 · 박혜연 · 이정재, 2010)로 밝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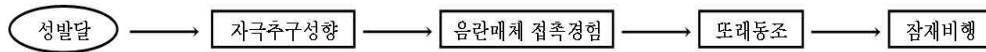
음란물 최초 접촉시기가 중학생 시기에 가장 빈번했으며 학년별로 중학교 1학년 시기가 가장 많았다(김현옥·박광숙, 2008).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전학년에 해당하는 청소년 초·중기가 성적 유혹에 가장 취약하며 성충동에 대한 자제력이 약하다는 것을 반영한다(신미·유미숙, 2010). 이러한 취약성으로 인하여 위법이 아니더라도 잠재적인 비행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실제로 서울지법에서 열린 청소년 상담 세미나 자료에서 상담청소년의 45.7%가 사랑한다면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신문, 2003. 7. 7). 미국의 경우 10대 청소년의 약 40%가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고(조선일보, 2010.6.4),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0%가 중학교 2학년 때 최초 성관계를 경험했고 다음으로 중3 때가 17.4%에 이르렀다(코리아헤럴드신문, 2010.4. 2).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성비행이 발생해 조사한 314명의 남자중학생 중 7.0%가 성비행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성식, 2010). 안타까운 것은 성비행을 시도한 청소년의 정신과적 증상수준이 성비행을 시도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남영옥·이상준, 2005)는 점이다.

이와 같이 중학교 청소년기가 다른 청소년 시기에 비해 성문제에 있어 취약성이 드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성발달 수준을 평가하고 음란매체 접촉경험과 잠재비행간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요인들이 분리되어 있어(Chang et al., 2001) 종합적이고 다양한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소희·신미·유미숙·하은혜·조유진(2008)이 한국 중학생의 성발달을 평가해 그 체계를 세워가도록 전인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그 하

위요인으로 성태도, 성적 의사결정, 성폭력 인식, 양성평등의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기존의 성지식이나 성태도만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관점으로 포괄적인 성발달을 평가하는 것은 의의 있는 시도라 여겨진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청소년 초·중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청소년은 인생주기상 독특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이들의 성발달 수준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인 자극추구성향과 또래동조경향이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요인까지 파악한다면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을 수정하는데 보다 정확한 시도가 될 것이다. 중학교 청소년기는 불안정하면서도 충동적인 면모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자극추구는 감각자극의 성향과 신기성에 대한 개인욕망의 정도에 따라 그 특성이 발현된다(Arnett, 1994). 자극추구성향은 청소년의 위험행동의 기저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는데(Matthew, Attila, & Irving, 1992), 자극추구동기가 높은 사람이 자극추구행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White, Labouvie, & Bates, 1985)으로 미루어 볼 때 음란매체 접촉과 같은 문제행동과의 그 연관성을 따져보아 이를 증폭시키는지 그 역할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또 다른 주요특성으로 또래동조는 중학생 시기의 큰 특징(Costanzo & Shaw, 1966)으로, 또래의 존재가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심리적 현상으로 또래집단에 일치하려는 경향을 말한다(오은경, 2006). 중학생 시기는 또래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인물로 유사성을 높이기 위해 영향을 주고받는다. 또, 이 집단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개인에게 도움이 되며 그것이 집단의 규칙에 대한 동조압력이 되기도 한다(Coleman & Hendry, 2006). 즉, 동조압력이 중학생으로 하여금 집단의 바람직한 가치규범에



<그림 1> 연구모형

동조하게 함으로써 그들 삶과 성인기 준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위험행동을 유발시키는 강력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한상철, 1998). 실제로 자극추구와 또래동조는 청소년의 음주행동(류나미·윤혜미, 2008), 집단 괴롭힘의 가해행동(하은혜·조유진, 2007), 흡연(박순길·조증열·박영호, 2003), 폭주(이창호 외, 2007)의 요인임을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최근에 청소년의 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다양한 국내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신미와 유미숙(2010)은 청소년 성발달에 따른 자극추구성향과 음란매체 접촉경험 및 반응에 관한 영향력을 분석한 적이 있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성발달이 다르게 나타나나 두 집단 모두 자극추구적일수록 음란매체를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2004), 김윤정과 이창식(2004)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에 따라 음란물 접촉 경험이 낮게 나타나 성발달과 성행동 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논한 바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발달에 주목하여 성발달 및 음란매체 접촉경험과 잠재비행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발달 수준과 음란매체 접촉경험간 경로에서 자극추구성향을 매개로, 음란매체 접촉경험과 잠재비행간 경로에서 또래동조를 매개로 하여 그 경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면 그림 1과 같다.

이때 남녀중학교 청소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는 성적 자극에 반응하는 양식이 일반적으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달된다는 점(Allgerier

& Allgerier, 1991)을 근거로 하여 성별을 구분하였다. 이에 대한 이유를 생물학적 차원에서 보면 남아에 비해 여아가 신체구조상 생식기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의견(Baldwin & Baldwin, 1997)과 사회적 요인으로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여아의 성적 반응에 대해 쉽게 처벌하는 경향(Traen & Kvaem, 1996)이 있기 때문에 연구되어졌다. 그러므로 남녀청소년의 연구모형을 분석하여 그 경로를 탐색하며, 이로써 청소년 성발달 및 이들 시기에서 발달적 특성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잠재적인 비행 정도를 파악하여 중학교 청소년의 성교육 및 상담 장면에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경기 소재의 중학교에서 1, 2,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그 가운데 음란매체 접촉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의 질문지와 무응답 및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하여 최종 표본 수는 921부로 이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남학생은 463명(50.3%), 여학생은 458명(49.7%)으로, 1학년은 293명(31.8%), 2학년은 331명(35.9%), 3학년은 297명(32.2%)이었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성발달, 자극

추구성향, 음란매체 접촉경험, 또래동조, 잠재비행에 관한 척도이다. 첫째, 청소년의 성발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는 중학생 성발달 척도(이소희·신미·유미숙·하은혜·조유진, 2008)이다. 이는 성태도, 성적 의사결정, 성폭력 인식, 양성평등의식의 4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수는 각각 성태도 17문항, 성적 의사결정 14문항, 성폭력 인식 16문항, 양성평등의식 15문항으로 총 62문항이다. 하위요인별로 문항내용을 살펴보면, 성태도 요인은 '사랑한다면 성관계를 해도 된다' 등으로, 성적 의사결정 요인은 '인터넷을 하다가 음란물 사이트가 열리더라도 머뭇거리지 않고 창을 닫을 수 있다' 등으로, 성폭력 인식 요인은 '성적인 농담을 하여 불쾌한 기분을 갖도록 하는 것은 성폭력이다' 등으로, 양성평등의식은 '학교회장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잘할 수 있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항내용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의 Likert식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태도가 개방적이고, 성적인 자극에 대해 단호히 거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성폭력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고, 양성평등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전체 신뢰도는 .923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성태도 .742, 성적 의사결정 .861, 성폭력 인식 .847, 양성평등의식 .966이었다.

둘째, 자극추구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자극추구척도 5판을 한국형으로 수정하고 변안한 박윤창·이미경·윤진(199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범주는 Likert식 5점으로 평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극추구성향이 높음을 뜻한다. 신뢰도는 .741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음란매체 접촉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정윤과 이명화(2003)의 척도를 사

용하였다. 이는 한국의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5가지 매체로 음란물에 관한 접촉경험의 수준을 묻게 되어 있다. 합산하여 그 점수가 높을수록 접한 경험이 많음을 의미하며, 본 척도의 신뢰도는 .774로 나타났다.

넷째, 또래동조의 정도를 묻는 척도로 조유진(2006)이 청소년의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3문항으로 중립적, 반사회적 행동에 관해 가장 친한 친구들의 종용에 합류할 것인지 아닌지를 예, 아니오의 2점 방식으로 응답한다. 해석은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동조성이 높음을 뜻하며, 신뢰도는 .788이었다.

다섯째, 청소년의 잠재비행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동원(2004)이 지위(무단결석, 가출경험, 음주, 흡연), 폭력비행(뺨뜯기, 패싸움), 재산비행(훔치기, 절도)의 하위요인으로 개발한 척도, 한국청소년개발원(2001)이 개발한 규범적, 법률적, 사이버 문제행동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잠재비행 경험이 잦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947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고,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또,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고, 성차를 확인한 후 남녀집단에서 각각 변인들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AMOS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성별에 따라 성발달, 자극추구성향, 음란매체 접촉경험, 또래동조, 잠재비행의 경로를 탐색하기 위하여 구조

<표 1>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집단평균비교 결과

		평균(표준편차)			t
		전체	남자청소년	여자청소년	
성발달	성태도	47.37( 7.592)	48.76( 8.599)	45.96(6.111)	5.685***
	성적 의사결정	45.90( 7.668)	46.17( 6.691)	45.63(8.541)	1.081***
	성폭력 인식	41.24( 7.518)	35.90( 6.160)	46.60(4.224)	-30.669***
	양성평등의식	58.48(10.917)	53.63(10.826)	63.35(8.602)	-15.058***
자극추구성향		38.86( 8.046)	41.51( 8.560)	36.20(6.491)	10.591**
음란매체 접촉경험		5.91( 1.368)	6.46( 1.531)	5.36( .894)	13.223***
또래동조		18.30( 3.076)	18.33( 3.353)	18.26(2.634)	.291**
잠재비행		43.74(12.434)	45.94(15.483)	41.54(7.779)	5.439***

Note. 전체 N = 921, 남자청소년 n = 463, 여자청소년 n = 458

\*\*p < .01. \*\*\*p < .001.

방정식모형을 분석하였는데, 이때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chi^2$  검증, TLI, CFI, RMSEA의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였다.

편차를 산출하였고 집단평균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정리하였으며, 모든 변인에서 .05 이상의 유의한 수준으로 남녀간 점수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모형분석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경로를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III 연구결과

청소년의 성발달 수준, 자극추구성향, 음란매체 접촉경험, 또래동조, 잠재비행간 경로를 탐색하기 이전 성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

#### 1. 변인들간 관련성

표 2의 성별에 따른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보

<표 2> 변인간 상관분석 결과

		남자청소년					여자청소년								
		1-2	1-3	1-4	2	3	4	5	1-2	1-3	1-4	2	3	4	5
1	1-1	-.148**	-.119*	.003	.403***	.345***	.120*	.316***	-.329***	-.161**	-.150**	.237***	.115*	.136*	.495***
	1-2		.029	.342***	-.098*	-.155**	-.098*	-.091		-.009	-.101*	.301***	.165***	-.049	-.569***
	1-3			.037	-.065	-.089	-.013	-.050			.252***	-.069	-.021	-.074	-.104*
	1-4				-.019	-.055	-.065	-.109*				-.226***	-.079	-.143*	-.112*
2					.291***	.149**	.359***					.266***	.146**	.038	
3						.145**	.540***						.148**	.333***	
4							.137**							.249***	

Note. 1 성발달[1-1 성태도, 1-2 성적 의사결정, 1-3 성폭력 인식, 1-4 양성평등의식], 2 자극추구성향, 3 음란매체 접촉경험, 4 또래동조, 5 잠재비행

\*p < .05. \*\*p < .01. \*\*\*p < .001.

<표 3> 성별에 따른 연구모형의 적합도

Model	$\chi^2$	df	TLI	CFI	RMSEA
남자청소년	67.067	16	.952	.994	.049
여자청소년	78.195	15	.946	.988	.053

면, 한 변인간 단순상관이 .80을 넘지 않아 다중 공선성 문제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는 동시적 중다회귀식에 변인을 투입해도 무방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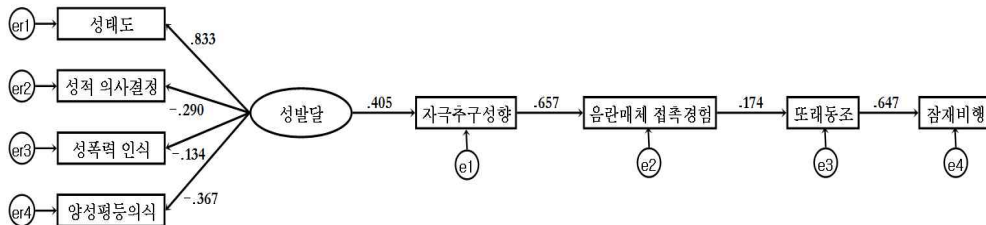
### 2. 성별에 따른 모형 검증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자료가 정규분포의 가정을 따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첨도와 왜도를 살펴보았다. 만약 정규분포의 가정이 위배된 경우 최대우도법에서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Curran, West, & Finch, 1996)이며, West, Finch와 Curran(1995)이 제시한 정규분포의 기준에 따라 분석에서 사용한 변인이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먼저 확인하였다. 이렇듯 성차와 정규분포 가정을 확인한 후 이 결과에 따라 남녀 두 집단에 대해 경로모형을 검증하였는데,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3에 제시되어 있고 남녀청소년의 각 모형은 그림 1, 2와 같으며 경로별 검증 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먼저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이를 평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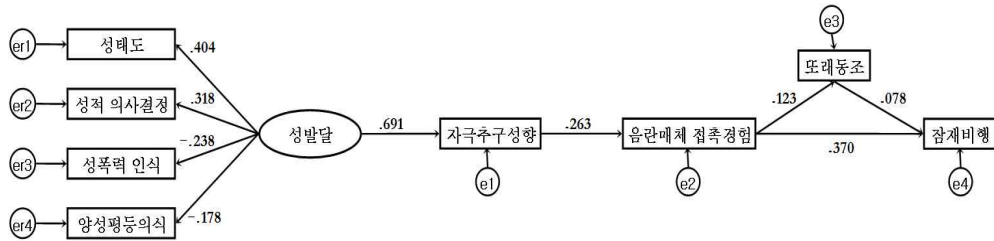
는데 있어  $\chi^2$  검증은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합도 지수인 TLI, CFI, RMSEA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남녀청소년 두 집단 모두에서 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TLI 지수는 .90이상을 좋은 모형의 적합도로 해석하나 간혹 .95이상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Hu & Bentler, 1999), RMSEA 지수는 .05이하 (Browne & Cudeck, 1993)를 좋은 적합도로 평가하였으나 .06이하(Hu & Bentler, 1999)이면 괜찮은 적합도로 해석하고 있어, 본 연구의 남녀청소년 연구모형은 모두 좋은 모형으로 그 적합함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남자청소년의 연구모형을 보면, 그림 2에서 남자청소년의 경우 성발달, 음란매체 접촉경험, 잠재비행의 경로에서 자극추구성향과 또래동조가 매개변인으로 간접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모형을 확인하였다. 즉, 성발달 수준이 자극추구성향을 매개로 하여 음란매체 접촉경험에 영향을 미쳤고 음란매체 접촉경험이 또래동조를 매개로 하여 잠재비행에 영향을 미쳐 변인들의 관계가 나란히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



<그림 2> 남자청소년의 모형(표준화 회귀계수)





<그림 3> 여자청소년의 모형(표준화 회귀계수)

도를 보였다. 각 변인간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발달 수준과 자극추구성향간 경로가 .405, 자극추구성향과 음란매체 접촉경험간 경로가 .657, 음란매체 접촉경험과 또래동조간 경로가 .174, 또래동조와 잠재비행간 경로가 .64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청소년의 성태도가 개방적이고 성적 자극에 대해 단호히 거절의사를 결정하지 못하며 성폭력에 대해 오인하고 양성평등의식이 낮을수록 자극추

구성향이 높았고, 자극추구성향이 높을수록 음란매체를 접하는 경험이 많았으며, 음란매체를 접하는 경험이 많을수록 또래에게 동조하였고, 또래에게 동조할수록 잠재적인 비행의 경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자청소년의 경우에서도 성발달, 음란매체 접촉경험, 잠재비행의 경로에서 자극추구성향과 또래동조가 매개변인으로 나타났으나, 이때 음란매체 접촉경험이 또래동조를 매개로 잠재비

<표 4> 성별에 따른 연구모형의 모수추정계수

성별	모수	비표준화추정치	표준화추정치	표준오차	t
남	성발달 → 자극추구성향	.472	.405	.130	3.630***
	자극추구성향 → 음란매체 접촉경험	.153	.657	.023	6.584***
	음란매체 접촉경험 → 또래동조	.383	.174	.102	3.753***
	또래동조 → 잠재비행	5.154	.647	.503	3.474***
	성발달 → 성태도	1.000	.833	-	-
	성발달 → 성적 의사결정	-.264	-.290	.078	-3.407***
	성발달 → 성폭력 인식	-.112	-.134	.050	-2.272*
	성발달 → 양성평등의식	-.541	-.367	.137	-3.956***
여	성발달 → 자극추구성향	1.817	.691	.558	3.257**
	자극추구성향 → 음란매체 접촉경험	.036	.263	.006	5.829***
	음란매체 접촉경험 → 또래동조	.361	.123	.163	2.211*
	음란매체 접촉경험 → 잠재비행	3.275	.370	.270	12.118***
	또래동조 → 잠재비행	.234	.078	.108	2.171*
	성발달 → 성태도	1.000	.404	-	-
	성발달 → 성적 의사결정	1.100	.318	.216	5.096***
	성발달 → 성폭력 인식	-.407	-.238	.111	-3.653***
성발달 → 양성평등의식	-.621	-.178	.308	-2.016*	

\*p < .05. \*\*p < .01. \*\*\*p < .001.

행에 영향을 주는 간접경로와 음란매체 접촉경험이 잠재비행에 영향을 주는 직접경로를 나타내는 모형을 확인하였다. 각 변인간의 관계를 경로계수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성발달과 자극추구성향간 경로가 .691, 자극추구성향과 음란매체 접촉경험간 경로가 .263, 음란매체 접촉경험과 잠재비행간 직접경로가 .370, 음란매체 접촉경험과 또래동조간 경로가 .123, 또래동조와 잠재비행간 경로가 .078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청소년의 성태도가 개방적이고 성적 자극에 대해 단호히 거절의사를 결정하며 성폭력에 대해 오인하고 양성평등의식이 낮을수록 자극추구성향이 높았고, 자극추구성향이 높을수록 음란매체를 접하는 경험이 많았으며, 음란매체를 접하는 경험이 많을수록 또래에게 동조하였고 잠재비행의 경험이 많았으며, 또래에게 동조할수록 잠재적인 비행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IV. 논 의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성발달 수준, 자극추구성향, 음란매체 접촉경험, 또래동조, 잠재비행의 경로를 탐색하고자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성발달과 음란매체가 비행의 경로에까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교육 및 상담 장면에서 성발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구조모형검증을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채택하였고, 검증에 앞서 이론적으로 제기된 가설모형은 청소년 잠재비행이 결과적 산물로 음란매체 접촉경험이 선행하고 매체접촉 경험이 남녀청소년 각각의 성발달 수준에 따라 다를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 이때 자극추

구성향이 음란매체 접촉경험을 매개했을 때 그리고 또래동조가 잠재비행을 매개했을 때 관계 구조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청소년 성발달, 음란매체 접촉경험, 잠재비행의 경로에서 자극추구성향 및 또래동조의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확인하였고, 남녀청소년 두 집단의 모형 적합도는 모두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형에서 남녀의 성차가 존재함을 밝혔는데, 구체적으로는 남자청소년의 성태도가 개방적이고 성적 자극에 대해 단호히 거절의사를 결정하지 못하며 성폭력에 대해 오인하고 양성평등의식이 낮을수록 자극추구성향이 높았고, 자극추구성향이 높을수록 음란매체를 접하는 경험이 많았으며, 음란매체를 접하는 경험이 많을수록 또래에게 동조하였고, 또래에게 동조할수록 잠재적인 비행의 경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자청소년의 성태도가 개방적이고 성적 자극에 대해 단호히 거절의사를 결정하며 성폭력에 대해 오인하고 양성평등의식이 낮을수록 자극추구성향이 높았고, 자극추구성향이 높을수록 음란매체를 접하는 경험이 많았으며, 음란매체를 접하는 경험이 많을수록 또래에게 동조하였고, 또래에게 동조할수록 잠재적인 비행의 경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에 따른 함의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성발달과 음란매체 접촉경험간 관계에서 남녀 청소년 두 집단에서는 각각 다른 성발달 수준이 나타나 성별에 따른 성발달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남자청소년의 경우 음란매체 접촉경험에 있어서 성태도가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성적 의사결정, 성폭력 인식, 양성평등의식이 부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성태도와 성적 의사결정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성폭력 인식과 양성평등의식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차의 존재가 밝혀졌다. 수많은 선행연구의 결과, 일반적으로 개방적인 성태도를 보이는 경우 성적 자극에 보다 허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연숙, 2001; 김경희, 2000; 박영숙·전영민, 2001; 이건호·강혜자, 2005; 이정은, 1998; Crooks & Baur, 2008; Russell, 1984).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뒤집어보면 음란물을 접하지 않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성역할 태도가 보수적이고 전통적이라는 Lee(2004)의 결과, 보수적 성태도가 표출적 성충동을 중재한다는 김윤정과 이창식(2004)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하겠다. 유사하게, 청소년의 성의식과 가치관이 위험한 성행동에 주요 매개변인이라는 연구결과(Gillmore, Butler, Lohr, & Gilchrist, 1992; Kotchick, Shaffer, Forehand, & Miller, 2001)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특히 이건호와 강혜자(2005)는 음란물 접촉과 강간통념의 관계에서 남자중학생의 경우에만 유의하게 나타나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성교육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는 남자청소년이 개방적인 성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태도가 성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로를 짐작케 한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매우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것(조아미, 2000; Robinson & Jedlicka, 1982; Santrock, 1996)임을 보고하였다. 우리는 이를 통해 청소년의 성교육이나 성문제 관련 상담에서 남녀청소년에 따라 접근을 달리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까지 개방적이고 보수적인 성태도에 대해 옳고 그르다 혹은 맞고 틀리다의 견해보다 그런 태도가 이후 그들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 경로를

추적하고 탐색하는 연구를 축적해나가 개별적으로 알맞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남녀청소년 두 집단 모두에서 성발달이 자극추구성향을 매개로 음란매체 접촉경험에 영향을 주는 경로와 음란매체 접촉경험이 또래동조를 매개로 잠재비행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확인되었다. 청소년기 대표적인 특징은 자극추구적인 경향과 또래동조성에 관한 심리적 현상일 것이며, 특히 이 두 가지 경향성은 위험행동을 수반하기도 한다. 즉, 청소년기 친구에 대한 동조성 및 유사성의 지대한 영향력은 또래끼리 되레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면서 악영향을 주고받게 하거나, 자극추구성향에 의해 촉발 또는 모방하며 부추긴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Kandell (1987)이 청소년기에 가장 친한 친구의 비행이나 성적인 일탈행동은 청소년에게 그러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단언한 바와 같은 맥락이며, 친구가 서로 호기심과 관심사가 비슷하고 서로를 잘 이해한다고 지각하기 때문에 성과 관련된 내용의 의논상대로 친구를 가장 많이 선택(김연석, 2007)한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그리고 Mattew 등(1992)도 자극추구성향이 위험행동의 기저요인이라고 밝힌 것과 일치한다. 자극추구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일탈추구(양시자, 2001; Newcomb & McGee, 1991)나 비행행동(박영신, 2001), 위험행동(전덕희, 2002)과 정적 상관을 갖는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로써 중학생 청소년에게 두드러지는 행동화 경향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자극추구성향과 또래동조의 영향력을 재확인하였고, 특히 잠재비행과 같은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어떤 요인을 조절해야 하는지 분명해졌다.

셋째, 성적 의사결정에서 성차가 존재함을 확

인한 점이다. 남자청소년의 경우 성적인 자극에 대해 스스로 단호하게 거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과 여자청소년의 경우 단호히 거부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자극추구성향을 거쳐 음란매체에 접촉하게 하고 또래동조를 거쳐 잠재비행까지의 영향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십대 여학생의 성관련 경험과 자기주장의 관계를 연구한 장복순·유명숙과 이선경(2001)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는 성별에 있어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단호한 자기표현이나 주장이 긍정성만을 나타내지 않는데 이를 테면 최상진·김시엽·김은미와 김기범(2000)의 연구결과가 이를 지지한다. 즉, 한국문화에서 여성이 사회적으로 규범화된 양식, 곧 겸손언행이 대인관계 측면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그러한 사람이 사회구성원으로 알맞으며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예의바른 사람으로 지각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에 따라 자기표현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것이 청소년기 성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성관련 자극을 이해하고 행동하는데 영향을 끼친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최상진과 김기범(1999)의 연구에서도 우리의 집단주의는 사회관계에서 자기억제를 강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겸양과 조화 및 양보와 협동을 중시하게 해준다고 지적하였다. 남자청소년의 의사표현은 당연하게 받아들여 지지만 여자청소년의 자기표현은 우리사회의 규범상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는 속담 격의 부정적인 인식을 수반한다. 결국 여자청소년의 단호한 거부 의사나 표현이 성적으로 개방되었다고 오해를 불러일으켜 더욱 문란하다는 편견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하나는 최근 식생활 개선으로 인한 신체적 조건이 향상되면서 초경, 사춘기가 빨라져 청소년기의 시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음란매체를 접하는 시기 역시 낮아지고 있고 비행에 있어서도 저연령화 되고 있다. 실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의 41.3%가 컴퓨터 음란물에 접촉한 적이 있다(Kim, 2003)고 보고된 바 있어, 초교 고학년을 포함하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다. 이는 청소년 대상의 연구들이 고심해야 하는 부분으로, 본 연구가 중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는데 반해 추후 연구들이 보다 포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비교한다면 성발달에 대한 보다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본 연구가 청소년의 성발달 수준에 관심을 갖고 이를 평가하여 음란매체 접촉경험이나 잠재비행과의 관계를 탐색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그 인과적 방향성을 달리 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성발달이 자극추구성향을 매개하여 음란매체 접촉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달리 보면 음란매체 접촉경험에 따라서 청소년의 성발달 수준이 달라지는 것도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인과적 관계를 후속연구를 통해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극추구성향과 또래동조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증폭요인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하여 연구하였으나, 그 밖의 보호 또는 억제요인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을 탐색하여 청소년의 성 관련 영역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후속연구에 제안할 수 있겠다.

## 참 고 문 헌

- 김경희(2000). **음란물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의 판단 능력과 자기통제능력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김상원(2005). **성교육·성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출판사.
- 김연석(2007).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의 중요성 : 성 의사소통, 성지식, 성태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윤정·이창식(2004). **청소년들의 성충동과 성충동 대처간의 관계에서 성태도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11(1), 397-419.
- 남영옥·이상준(2005).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과 성비행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2(1), 35-49.
- 류나미·윤혜미(2008).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또래동조성향 및 부모의 관리감독이 청소년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25, 39-69.
- 박순길·조증열·박영호(2003). **또래비행동조, 신체적 성숙 및 스트레스가 중학생의 흡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8(3), 473-486.
- 박영숙·전영민(2001). **청소년 성심리검사의 신뢰도와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0(4), 775-793.
- 박윤창·이미경·윤진(1995). **자극추구동기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2(1), 53-64.
- 방송통신위원회(2009). **어린이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행태 및 보호방안 연구**. 서울: 방송통신위원회.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아동·청소년백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신미·유미숙(2010). **청소년 성발달에 따른 자극추구 성향과 음란매체 접촉경험 및 반응의 영향력 분석**. **청소년학연구**, 17(11), 205-225.
- 신혜섭·양혜원(2005). **청소년의 성폭력 실태와 예측요인 :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5, 135-156.
- 여성가족부(2010). **2009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 윤가현(2006). **성 문화와 심리**. 서울: 학지사.
- 이건호·강혜자(2005). **강간통념 수용도, 성역할 태도 및 음란물 접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11(3), 23-40.
- 이성식(2010). **청소년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성비행 원인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21(2), 153-175.
- 이소희·신미·유미숙·하은혜·조유진(2008). **중학생 성발달 평가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1), 63-78.
- 이임순·최규연·차성현·박혜연·이정재(2010). **한국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 행태 조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53(6), 512-519.
- 이정윤·이명화(2003). **음란물을 자주 접촉하는 청소년의 성 및 심리사회적 특성**. **청소년상담연구**, 11(1), 32-41.
- 이창호·이한중·신효정·백윤미·송은미·박관성·이동훈(2007). **폭주 청소년 개입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1). **인터넷상에서 음란물 접촉빈도, 어린이·청소년 정보이용 실태조사 및 교사·학부모 대응 실태조사**. 서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조아미(2000).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과 교육적 시사점**. 한국청소년개발원.
- 조선일보(2010.6.4). **“美 10대 청소년 40%가 성관계.”** <http://www.chosun.com/>에서 2011년 4월 1일 인출.
- 최상진·김시업·김은미·김기범(2000). **한국 여성들의 사회 규범적 행위 양식에 대한 조망**.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5(2), 103-115.
- 코리아헤럴드신문(2010.4.2). **“청소년들, 중2때 첫 경험 가장 많아”** <http://www.koreaherald.com/>에서 2011년 4월 9일 인출.
- 하은혜·조유진(2007).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인내적 중재요인**. **인간발달연구**, 14(4), 49-64.
- 한겨레신문(2003.7.7). **“청소년 17% 성경험 있다”** <http://www.koreaherald.com/>

- //www.hani.co.kr/에서 2011년 4월 9일 인출.
- 한국인터넷진흥원(2009). **인터넷으로 인한 유·청소년 행동변화 관련 실험연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청소년개발원(2001). **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상철(1998). 청소년기의 위험행동 : 교우관계 및 가족역할 변화와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5(3), 45-62.
- Allgerier, E., & Allgerier, A. (1991). *Sexual interactions*. Lexington, MA : Health and Company.
- Anderson, C. A., Berkowitz, Donnerstein, E., Huesmann, L. R., Johnson, J. D., Linz, D., Malamuth, N. M., & Wartella, E. (2003). The Influence of Media Violence on Youth.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 81-110.
- Arnett, J. (1994). Sensation seeking : A new conceptualization and a new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 289-296.
- Brown, T. A. (2006).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applied research*. New York : The Guildford Press.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 Sage.
- Chang, S. B., Kim, S. Y. J., Han, I. Y., Park, Y. J., Kang, H. C., & Lee, S. K. (2001). Sexual behavior and related factors of coitus of teenage girls in Korea. *J Korean Acad Nurs*, 31(5), 921-931.
- Coleman, J. C., & Hendry, L. B. (2006). 청소년과 사회 : 청소년기의 심리, 건강, 행동 그리고 관계의 본질(강영배 · 김기현 · 이은주 역). 파주: 성안당.
- Costanzo, P. P., & Shaw, M. E. (1966). Conformity as a function of age level. *Child development*, 37, 967-975.
- Crooks, R., & Baur, K. (2008). *Our Sexuality*. Belmont, CA : Wadsworth.
- Donnerstein, E. (1994). Pornography : Its effect on violence against women. In N. M. Malamuth and E. Donnerstein (Eds.), *Pornography and Sexual Aggression*. New York : Academic Press.
- Gillmore, M. R., Butler, S. S., Lohr, M. J., & Gilchrist, L. (1992). Substance Use and Other Factors Associated With Risky Sexual Behavior Among Pregnant Adolescents.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24, 255-261.
-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 Longman, Inc.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Kotchick, B. A., Shaffer, A., Forehand, R., & Miller, K. S. (2001). Adolescent sexual risk behavior : A multi-system perspectiv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1, 493-519.
- Loeber, R., & LaBlanc, M. (1990). Toward a developmental Criminology. In Tonry, M., & Morris, N. (Eds.), *Crime and Justice : A Review of Research*.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lamuth, N., M., & Donnerstein, E. (1982). The effects of aggressive-pornographic of mass media stimuli. In Berkowitz, L.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New York : Academic Press.
- Malamuth, N., M., & Donnerstein, E. (Eds.) (1984). *Pornography and Sexual Aggression*. New York : Academic Press.
- Matthew, S., Attila, K., & Irving, M. (1992). Factors associated with alcohol use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3(2), 122-136.
- Moffitt, T. (1993). Adolescent-limited and life-course 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647-701.
- Nagin, D. S., & Farrington, D. P. (1992). The Stability of Criminal Potential from Childhood to Adulthood. *Criminology*, 30, 235-260.

- Newcomb, M. D., & McGee, L. (1991). Influence of Sensation Seeking on General Deviance and Specific Problem Behaviors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1(4), 614-628.
- Robinson, I. E., & Jedlicka, D. (1982). Change in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from 1965 to 1980 : A research not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237-241.
- Santrock, J. (1996). *Adolescence*. USA : Brown & Benchmark.
- Træen, B., & Kvalem, I. L. (1996). Sexual socialization and motives for intercourse among Norwegian adolescent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5(3), 289-302.

---

2011년 2월 27일 투고, 2011년 5월 11일 수정  
2011년 5월 24일 채택